

## 21세기 실크로드를 꿈꾼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532일

- 타슈켄트 세계경제외교대학교 전자도서관 -



이 호 연

양지고등학교 사서교사  
前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계경제외교대학교 전자도서관 사서  
yeonni@naver.com

누구에게나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일까에 대한 궁금증은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거대한 물음표로 남을 것이다. 필자 역시 예외는 아닌지라 가슴 속에 있는 이 질문은 행동하는 순간순간마다 거대한 물음표가 되어 돌아오곤 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옳은 삶에 대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란 부족하고 미약하나마 내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아닐까 라는 답을 얻고 있는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어떤 것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보물같은 시간들로 남아있다.

### 파견, 나눔의 시작

2001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한국해외봉사단(KOV, Korea Overseas Volunteer)를 알게 되었다. 교육 분야를 비롯한 컴퓨터, 농업, 태권도 등 여러 분야의 봉사자를 매년 모집하지만 필자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없었다. 개발도상국 ODA<sup>1)</sup>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적은 분야,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했고 사람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는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졸업 후 임용고사를 치르고 중·고등학교 사서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지만, 늘 꿈꿔왔던 '나누는 삶'에 대해 목말라 있었던 것 같다.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순간,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 줄로만 알았던 그 꿈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2007년 5월, 최종합격 후 6주 간의 국내훈련을 거쳐 드디어 우즈베키스탄 땅을 밟게 되었다.

1)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공적원조



▲ 출국날, 인천공항에서 동기단원과 가족들



▲ 우즈베크인의 자랑, 아무르티무르 공원



▲ 타슈켄트 시내 전경



▲ 실크로드의 중심지 사마르칸드, 부하라 ▲



▲ 2000년 전 고대도시 '히바'에서 필자

과거 찬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실크로드의 중심지,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한 시각은 '칠라'가 막 시작되어 더위가 최고로 기승을 부리는 시점인 7월 중순이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후끈거리는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을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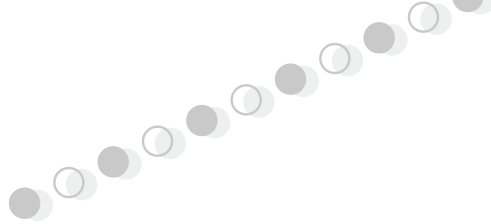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정보라고는, 고작 과거 구소련 연방이었다가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점과 추운 곳일 거라는 막연한 정보들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도서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일할 기관에 대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전자도서관에 관련하여 어떤 일을 맡게 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었다. 심지어 주로 학교도서관 운영업무와 독서교육을 맡아왔던 필자에게는 전자도서관 업무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 반갑다 우즈벡!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9월 1일 구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하여 올해로 독립 19주년을 맞이하는데 미국, 러시아 등으로의 개방과 협력을 추구하는 다른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와는 달리 '민족주의'를 내세워 '자가발전'을 꾀하고 있는 조금은 독특한 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의 관계는 아주 우호적이어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었다. 평생의 꿈이 한국에 가보는 것이 소원인 이들이 있을 정도니 말이다.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의 시작은 우즈벡 공영방송에서 방영하고 있는 한국드라마에서부터였다.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시작했던 한류가 우즈베키스탄 뿐만 아니라 이 곳

2) 칠라 : 더위(혹은 추위)가 최고로 기승을 부리는 40일 동안의 기간



중앙아시아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벌써 10번 이상 방영되었던 ‘대장금’, ‘겨울연가’ 를 시작으로 하여 연일 방영되고 있는 ‘주몽’, ‘장보고’, ‘명성황후’ 등 많은 한국드라마가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어학과가 정식으로 개설되어 있기도 하다. 필자가 소속되어 활동했던 대학에서도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여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90여명에 이른다.

우즈베키스탄은 다민족 국가이다. 130여개의 인종이 모여 사는 그야말로 ‘인종의 용광로’ 라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라는 특성답게 보통 2~3개 인종이 섞인 혼혈민족이 많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즈베크 민족을 비롯하여 타타르 민족, 러시아 민족, 고려인, 동양인을 닮은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의 카라칼팍 민족 등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이 모여 산다. 독립 후 자치정부가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여느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이 그렇듯 아직까지 과거 구소련 연방의 그늘에 놓여있는 터라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도서관 및 문화사업관련투자가 활발한 러시아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은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사업관련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산적해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문헌정보학계 역시 기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다. 우즈베크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이 없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대학에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사서들은 구소련 시대에 러시아식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의 2가지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같은 내용의 도서가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 두 가지 언어로 출판되는 경우가 많다. 종이가 귀하기 때문에 출판업계의 사정 또한 그리 녹녹치는 않아서 도서 제본과 복사가 일반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체제였던 국가들이 그렇듯이 우즈베키스탄 역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과도기에 놓여있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16년 이상 장기집권에 들어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등, 완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수동적이고 철저히 관리자와 판매자 중심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도서관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개가식 운영방식보다는 거의 모든 도서관들이 폐가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장서들이 러시아나 해외에서 수입된 것들이어서 워낙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심지어는 1950년대 이전 출판 장서들까지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권법」은 제정되어 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지는 않다.

### 세계경제외교대학교 전자도서관(УМЭД Электро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7주 간의 현지적응훈련을 마친 2007년 9월, 타슈켄트 세계경제외교대학교로 파견이 되어 업무를 시작하였다. 필자가 활동했던 타슈켄트 세계경제외교대학교<sup>3)</sup>(УМЭД, 우메드)는 교육부 소속의 타 대학들과는 달리 외교부 소

3) УМЭД : Университ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йи Дипломация(영어명 UWED, University of World Economy & Diplomacy)

속이자 우즈베키스탄의 석학들이 모이는 대학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외교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다. 국제경제관계학과(МЭО<sup>4)</sup>, 메오), 국제법학과(МП<sup>5)</sup>, 엠페), 국제관계학과(МО<sup>6)</sup>, 모)의 3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고 2년 과정의 대학원생과 각 학부별 석박사과정 전공자까지 합쳐 모두 1,5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한 영국계 대학인 웨스트민스터대학교(Westminster University), 모스크바 국립대학교(МГУ, 엠게우) 등의 외국계 분교 대학을 제외한 순수 우즈베키스탄 대학에서 최초로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한 대학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전자도서관 붐이 일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본교를 벤치마킹하여 전자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에 전자도서관 건립을 약속하였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OD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년간의 프로젝트 기간을 거쳐 전자도서관이 완공되었다. 총 17명의 사서와 1명의 컴퓨터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으며, 15만 여권에 달하는 장서들을 소장하고 있다. 60여종의 경제, 법학, 국제관계 관련 학술잡지를 구독하고 있으며, IDMS시스템을 이용, 자체 서버에 원문정보 및 영상 음원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담당했던 다우데이터 시스템 측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실정에 맞게 영어로 제작된 Skynet 프로그램을 공급하였고, 도서관 가구, 컴퓨터를 비롯한 기타 하드웨어 역시 한국 측에서 모두 공수되었다. 프로그램은 제작 초기 웹기반으로 제작되었지만,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은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인트라넷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필자가 활동했던 2008년 12월까지 15만권의 장서 중 일부는 아직 전산화 작업 단계에 있었고, 전산화 작업이 시작되기 전 사용되었던 러시아식 분류법인 베베카(ББК)를 데카데(ДКД<sup>7)</sup>식 분류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 데카데(ДКД)는 듀이십진분류법(DDC)을 러시아어로 번역한 분류법인데, DDC와는 조금 다르게 러시아의 실정에 맞게끔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언어가 서투른 필자는 별도로 분류전문사서의 도움을 받았다.

IT산업에 기반을 둔 우리 전자도서관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는 본교 도서관이 가히 혁명적이라 불리우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이들은 이제껏 사용되지 않았던 전자목록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 US MARC으로 목록을 입력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전자도서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 러시아인 사서들이 대부분이어서 수기로 작성하는 목록카드가 병행되어 사용되고 있다. 구소련 시대에 교육을 받은 거의 대부분의 사서들은 560대 연령층의 여성들이고 영어를 하지 못한다. 직원 컴퓨터 교육을 간간히 시행하긴 했지만, 이들에게 컴퓨터는 그저 지루한 시간을 달래기 위한 오락기에 불과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컴퓨터를 배우려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분류를 담당했던 벨라루시 출신 타티아나 이마노브나 분류전문사서는 정색을 하며 말한다. “전자도서관 시스템은 매우 편리하고 획기적이지만, 우즈베키스탄처럼 정전이 잦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고

4) МЭО : Международ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국제경제관계학과)

5) МП :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аво (국제법학과)

6) МО :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국제관계학과)

7) ДКД : Десятичная Классификация Дьюи (듀이십진분류법)



귀찮아도 그냥 손으로 작성하는 게 편하다”며 “컴퓨터가 무섭다”라고까지 말한다. 영어 메뉴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활용은 영어와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그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전자목록작업과 컴퓨터 관련업무를 비롯하여 한국과의 지속적인 연락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데카데21(ДКД21)



▲전산화되어진 도서들(우즈벡어 자료)



▲전산화되어진 도서들(러시아어 자료)



▲ Skynet 프로그램

두 번째 이유로, 이들은 원문정보제작실을 비롯한 서고 이외의 다양한 공간, 그리고 우즈벡에서 찾아보기 힘든 쾌적한 환경을 꼽는다.

도서관 건물은 총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직원 사무실 및 서고로 이루어져 있고, 학생들의 교재를 비롯한 의서들이 보관되어 있다. 2층은 직원 사무실 및 회의공간, 서버실, 열람실, 원문정보제작실과 열람실, 수업을 위한 세미나실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학, 법학, 어학 등의 전공 관련 참고서적들과 잡지, 신문을 보관하고 있다. 이용자는 목록카드나 검색시스템을 통해 목록을 검색하거나 사서에게 직접 자료명을 이야기하거나 적어주면 사서는 자료를 찾아주는 반폐가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층에서 대출된 교재 등의 자료들은 관외대출이 허용되는 반면, 2층에서 대출된 자료들은 관외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도서관 개방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오후 12시 이후부터이다. 본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방출신의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80%정도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2007년 9월, 처음으로 도서관을 개방했을 때는 업무시간이 오후 5시까지였지만, 대학 총장의 특별명령(?)으로 인해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한다. 16명의 사서들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교대로 일하고 있다.



▲ 본교 도서관 전경



▲ 1층 대출대



▲ 원문정보제작실



▲ 2층 대출대 및 열람실



▲ 1층 정보검색실



▲ 전공서적서가

## 물바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11월 어느날 아침, 새벽부터 전화벨이 요란스레 울린다.

도서관에 큰 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현장은 그야말로 이수라장! 도서관 2층에서 뜨거운 물이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전체적인 난방 시작과 동시에 2층 빗데레이까<sup>8)</sup>가 터지면서 밤새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 도서관은 한마디로 거대한 사우나장이 되어 있었다. 1층 1,000여권에 달하는 도서들이 밤새 뜨거운 물에 젖어버렸고, 사무실과 도서관 기타 대부분의 시설들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1층 정보검색실과 2층 열람실은 바닥에만 물이 흥건한 정도라 빠른 처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전 직원이 팔을 걷어부치고 일주일에 걸친 제수, 탈수작업이 진행되었다. 도서관이 정상 운영되는 데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됐다. 연일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졌던 유난히 춥고 눈도 많았던 2007년 겨울날씨 탓이었는지, 이후로도 자잘한 두 세 번의 난방기 사고를 겪어야 했다. 이후 맞이한 2008년 겨울 역시 노심초사하며 지냈던 웃지 못할 기억이 있다. 귀국한 지 1년 반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2009년 겨울은 무사히 지나갔는지 여전히 궁금하다.



▲ 도서관 1층에 설치된 한-우 문화센터 박물관 ▲



## 우즈벡에서 살아남기

모든 것이 낯설었던 파견 초기, 명성에 걸맞지 않게 전자도서관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많이 뒤떨어져 있는 터라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도서관은 그저 책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책 창고'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또한 분류 및 목록작업을 위하여 한국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했던 업무의 특성상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러시아어, 우즈벡어의 두 가지 언어를 알아야 했으므로 언어문제가 매우 컸다(이들은 대부분 러시아어

8) 우즈벡은 정부에서 난방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는 11월 즈음이 되면, 집집마다 벽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기를 통해 전체적으로 난방이 시작되는데 난방기를 '빗데레이까'라고 한다. 우리의 라디에이터에 해당한다.

와 우즈베크어를 사용하고 두 언어의 자료를 이용한다). 대부분의 직원이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파견과 동시에 러시아어를 익히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했다. 따로 통역을 구하는 일도 어려웠을 뿐더러 그저 그들이 원하는 도움을 직접 주고 싶어서이기도 했다. 초기보다는 많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임기종료 시점까지도 언어 문제는 쉽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기도 했다.

처음 이 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도 그랬지만 임기가 종료된 시점까지도 항상 안타까웠던 점은 잔존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의 영향으로 인해 이용자 중심으로 도서관이 운영되기보다는 철저하게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자유로운 이용을 꾀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철저한 통제 하에 운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개가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듯 보인다. 또한 적은 월급문제는 이곳 직원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일하는 태도보다는 수동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주요원인이 되는 것 같았다.



▲ 직원들과 함께



▲ 도서관장 진감연에서

### 느릿한, 그러나 확실한 변화

전자도서관이 구축된 지 3년이 지났다. 절대로 개선되어질 것 같지 않았던 업무환경도, 직원들의 전자도서관에 대한 인식도도, 크지는 않지만 개관 초기와 비교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2008년 10월, 우즈베키스탄 서부지역 페르가나에서는 2박 3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대학도서관장들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필자는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본교 이리나 이바노브나 도서관장의 회의 참여 이후로 도서관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한 달 뒤, 타슈켄트 대학도서관장들이 모여 도서관을 소개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컨퍼런스가 본교 대학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2008년을 시작으로 연 1회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



타슈켄트 대학도서관장 회의 전경 ▲



▲

마련할 것이라 한다. 덧붙여 저작권에 대한 강의와 간단한 교육관련도서 전시회가 이어졌다.

달팽이보다도 좁고, 거북이보다도 느린 한걸음이지만, 이들은 분명 변화하고 있었다. 한국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소박하게나마 행사를 준비하고 치루는 과정을 보면서 이들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던 시간이었다.

## 작지만 힘찬 변화의 발걸음

“쁘리벳 비까?! 깡 질라?” (안녕, 비까! 잘 지냈니?)

매일 아침, 출근하면 기름기 짙은 아침식사로 고문 아닌 고문이 시작된다. 항상 반갑게 인사해 주고, 가족처럼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이들에게 한없이 고마울 따름이다. 이들과 처음 만났던 2007년 여름, 더듬더듬 서투른 러시아어로 간신히 인사하고, 한국에서 온 사서라며 여러분과 즐겁게 일하고 싶다고 수줍게 소개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동양에서 온 사서의 모습을 보며 신기해하던 학생들의 눈빛도 이제는 추억으로 남아있다. 필자가 잊어버렸던 생일까지도 정성스럽게 챙겨주었던 따뜻한 이들의 마음씨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못할 감동으로 기억될 것이다. 귀국 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들은 이메일을 통하여 소식을 전해오곤 한다.

턱없이 작고 미약하지만 마음을 담아 한 걸음씩 내딛는 조그마한 노력들이 모여,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도약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으로 비춰졌다. 과거 한국이 그랬듯, 이들 역시 빠르거나 눈에 띄게 크지는 않더라도 홀로서기를 위한 꾸준하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얼마간의 시간만이 필요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기에 앞으로의 가능성은 무한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저 열정만을 가지고 파견되었던 초기, 이들의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의 시스템이 최적이란데 그에 맞추려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들에게는 그것이 상처로 다가올 수 있음을 깨달았다. 아주 느리지만, 이들은 분명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발걸음에 함께 동참할 날이 다시 오기를 바라며 두서없는 글을 마칠까 한다. 

9) 필자의 러시아 이름. Victoria의 줄인 이름(애칭)이다.